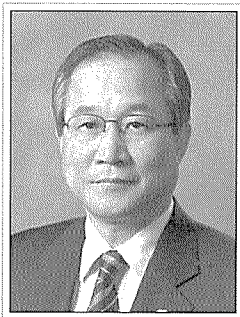




## 원자력의 범세계적 협력과 공동 참여 기대

한준호

대회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해를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 참여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회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개회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차대회에 국제 원자력계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상황을 이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먼 길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다니구치 토미히로 IAEA 사무차장님, 부웅 후 탄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님, 리처드 미저브 IAEA 국제원자력안전전문그룹 위원장님, 올리버 카롱 프랑스 원자력청 부청장님, 타쿠마 마사오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님, 그리고 그 밖의 외국 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 : 현안과 도전」이라는 대회 주제하에 원자력의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고유가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자력은 깨끗한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응용 기술로 인해 에너지 공급 이외에도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의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원자력은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 28년 동안 꾸준히 연구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총 20기의 상업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약 40%를 원자력을 통해 공급하고 있을 만큼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용량 1,772만 kW의 원전 운영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운영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원자력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앞으로의 원자력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 시설의 운영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과 난관은 우리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계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범세계적인 협력과 공동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이번 제21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아무쪼록 세계 원자력계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하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신 내빈들께서는 체류 기간 동안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화려한 경관들을 감상하시면서 한국의 화창한 4월의 봄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연차대회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준비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본 대회에 함께 하여 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